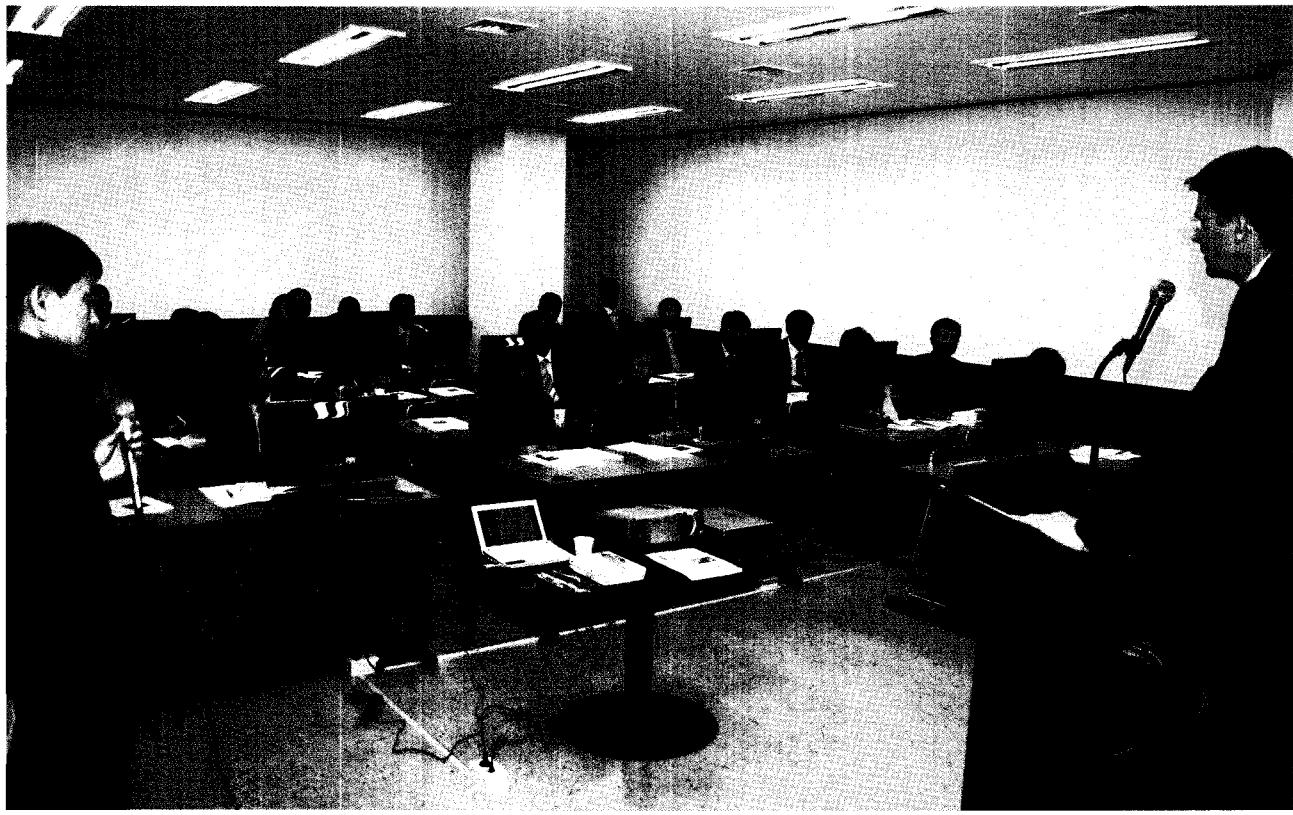


친환경 인쇄를 위한 FSC · PEFC 인증 설명회 인협 · 컨트롤유니온 공동주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컨트롤유니온 한국지사(대표 양 시퍼)는 지난 3월 4일 인쇄문화회관 교육관에서 국제산림 협의회 인증(FSC & PEFC)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컨트롤유니온 한국지사가 MOU(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로 30개사, 30여명의 인쇄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친환경 인쇄 인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협은 지난 1월 22일 컨트롤유니온과 친환경 인쇄 인증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국내외의 화두인 저탄소녹색 성장을 위한 친환경인쇄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에 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었다. 인협과 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숀코리아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인협 회원사가 인증을 추진할 경우 인증비용을 10% 감액해 주기로 합의한 바 했다.

인증설명회에 앞서 인협 관계자는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된 환경문제에 대해 인쇄업계도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 판단, 회원사들에게 환경 인증에 대한 이해를 돋고 FSC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컨트롤유니온 한국지사의 양 시퍼 대표는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인쇄업계에서 환경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트롤유니온에 대한 소개와 FSC 및 PEFC 인증의 개요 및 인증 스탠더드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끝으로 라벨 및 클레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컨트롤유니온은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선박 화물 검정,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 인증, 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며 국내에서는 친환경 인증 전문기관으로 FSC-FM(산림 관리 인증), FSC-COC(목제품 생산유통 인증), PEFC Global Recycle Standard(국제 리싸이클 인증기준)등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설명회 주요 내용 및 요약

산림 인증제도의 역사

산림인증제도는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열대림의 감소로 인해 산림 환경인증제도를 고안, 도입하게 되었다. 1993년 FSC(국제산림인증협의회)가 설립되어 산림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범 세계적인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 되었다. 단순히 산림의 보존에 머물지 않고 확장된 개념으로 목제품 및 종이류 제품에 대한 인증이 체계화되었다. 현재 산림인증제도는 독립적인 제3의 인증기관으로서 해당지역의 법규를 바탕으로 하는 산림관리 공표와 기준을 공개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다. 25개국 130명의 대표자 협의에 따라 독일의 본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20개 인증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FSC 산림인증의 10대 원칙과 취득시의 장점

FSC 산림인증은 10대 원칙을 갖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지키는 전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1. 법률과 FSC원칙 준수(Compliances with laws & principle)
2. 소유권, 사용권 및 책임(Rights & Responsibilities)
3. 원주민의 권리(Indigenous peoples' rights)
4. 지역사회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Community relations & Worker's rights)
5. 산림이 가져오는 편익(Benefits from the forest)
6.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
7. 관리계획(management plan)
8.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assessment)
9.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의 보호(Maintenance of high conservation value forest)
10. 조림(Plantation)

10대 원칙 아래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FSC인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회사는 위법적이거나 관리되지 않고 벌목된 산림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는 신호를 고객과 시장에 적극 홍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타당한 권리의 원천으로 생겨난 증명할 수 있는 제품에 FSC상표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시장에서의 신규 고객 접촉 및 새로운 시장으로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



FSC로고 사용법, 규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적용돼

FSC인증은 FSC100%, FSC Mixed, FSC Recycled의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로고에는 FSC로고, FSC홈페이지 주소, 라벨제목, 라벨 텍스트, FSC인증번호가 들어가게 된다. 세부적으로 로고는 제품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가로형 또는 세로형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연필과 같이 작은 제품에는 FSC로고, 라벨타입, 인증번호 만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FSC-COC 산림인증 받은 업체다.

아트원제지(주), 아트프린팅, 대화제지, 도영통상, 동성 인쇄, 드림애드, 덕홍제지, 은성프린터, 화인페이퍼, 화인 특수지, 해성특수지, 해인기획, 한창제지, 한국제지, 한솔 제지, 한성피앤아이, 홍원제지, 화성, 형제아트인쇄, 일진 페이퍼, 신진전산품, 코리아그린페이퍼, 국일제지, 명함 24, 무림제지, 팩컴코리아, 에스앤케이인터내셔널, 삼화 인쇄, 삼성프린팅, 삼원특수지, 삼원프린테크, 삼원정밀 인쇄, 신성특수지, 신성종합인쇄, 성우P&D(주), 타라티피 에스, 우일펄프앤페이퍼, 웅진홀딩스, 양지사, 연아트프린팅, 유한킴벌리, 신정프린테크, 잉그로주식회사, (주)푸른솔특수지류유통, 씨앤피유통 (총 45개 업체)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